

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 (4) 위기신호를 잡는 사람들

우리는 ‘한 통의 전화’… 시작되는 위기 대응

14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제주도자살예방센터 상담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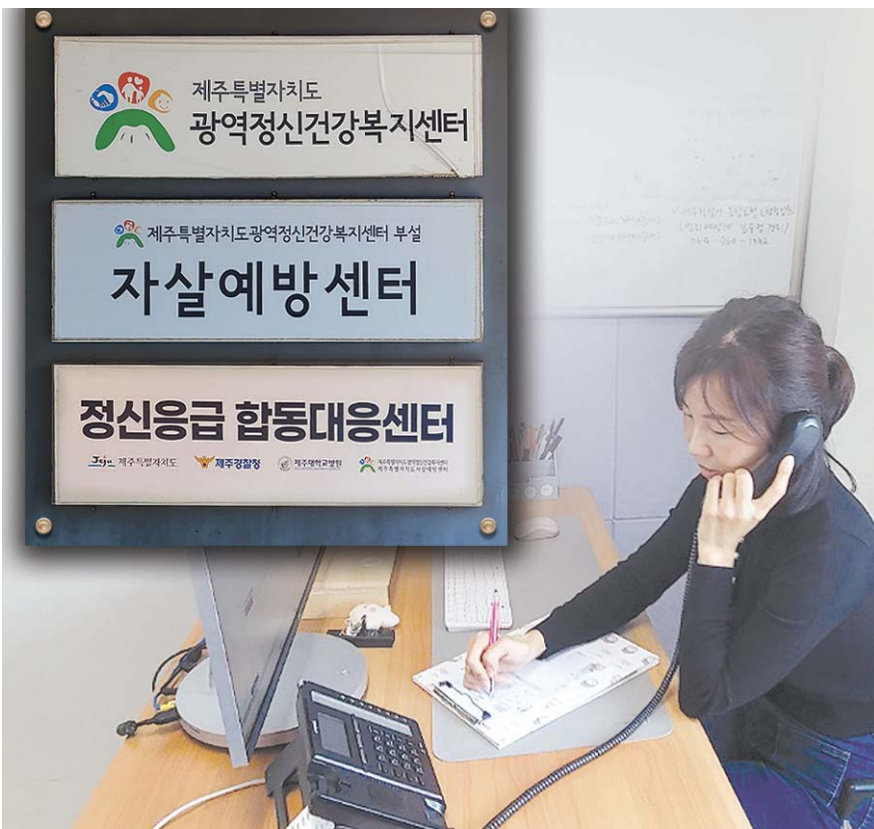
전화기가 울렸다. “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자살예방센터 위기대응팀 소속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수화기 너머로 위기상황에 놓인 이의 사연이 이어졌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는 밤낮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전화가 매일 이어진다.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12명이 주·야간으로 교대하며 상담실을 지킨다. 정신건강 위기부터 자

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6692건과 2940건으로 증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 가운데 자살 위기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평균 약 43%에 이른다. 올해도 7월말 기준 전체 정신건강위기상담 4827건 중 약 40%인 1910건이 자살위기상담이었다. 홍정미 제주도자살예방센터 위기대응팀장은 “힘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거나 망설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상담전화’”라고 말했다.

위기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도움 요청에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의료기관, 경찰·소방, 학교, 복지기관, 생명지킴이 등 도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14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제주도자살예방센터 상담실에서 홍정미 위기대응팀장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특별취재팀

있는 제주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소속 경찰관들과 소방대원이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대응한다. 경찰은 위험 요소를 차단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은 대상자의 신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센터 위기대응팀은 현장에서 위기정도를 다시 판단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개입에 나선다. 스스로 신체를 돌보기 어렵고 자살 위험도가 높아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도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센터 위기대응팀은 실제 야간이나 주말 정신응급 합동대응 현장에서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겹쳐 작용하는 경우를 다수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을 겪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처지를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거나, 평소 앓던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통증이 겹치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월세나 공공금이 장기 체납되는 등 경제적 취약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례 등을 마주해왔다.

정신응급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뒤에도 대응은 이어진다.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의 30.2%는 사망 전 1년 이내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 재시도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55.3일로 나타났다. 위기의 순간을 넘긴 뒤에도 다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번 포착한 위기신호를 놓치지 않고 다음 도움으로 이어가고, 그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 이유다.

특별취재팀=박소정·양유리·강희만기자

서귀포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대형 유통업체 대상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도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 지역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된다.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유타기자 haru@ihalla.com

제주 청년 10명 중 6명 “청년정책 몰라”

저학력·미취업·주거 불안 청년일수록 소외 심각 연구원 “제도 밖 청년으로 홍보 타깃 재설정해야”

제주 청년 10명 중 6명은 도내 청년정책을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실제 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정책은 누구에게 닿는가’에 따르면 만 19~39세 제주 거주 청년 2000명 가운데 61.4%(1217명)가 5개 청년정책 영역을 모두 알지 못했으며 정책을 하나라도 알지만 참여한 적은 없는 ‘인지·미참여’는 31.2%(636명), 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은 7.5%(147명)에 그쳤다.

정보·전달, 역량 형성,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 정책 참여 등 5개 영역에 대한 개별 정책 인지율도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청년참여기구·청년자율예산 등 정책과정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 보장 정책’의 인지율은 21.0%로 5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청년정책 인지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 32.5%, 관심 부족 29.3%, 실제 필요와의 불일치·체감 부족 28.0%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다만 정책을 전혀 모르는 비인지 청년은 ‘홍보 부족’ (36.2%)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은 청년은 ‘실제 필요와 불일치’ (3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구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며 커뮤니티 활동으로 관계망이 열려 있는 청년에게는 정책이 도달하는 반면, 지원이 필요한 저학력 청년과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은 정책의 존재조차 모른 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 1차 타깃을 ‘제도 밖 청년’으로 재설정하고 관계망 기반 확산 전략 도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전달거점 분산 등 참여 단계의 문턱 낮추기 ▷정책 필요가 명확한 집단과 접근 자체가 취약한 집단을 구분한 이원적 타깃팅 ▷인지율과 참여 전환율을 분리한 단계별 성과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소범기자 sobom@ihalla.com



추석맞이 특별 할인, 지금부터 준비해요

노비타비데 역대급 할인

2026. 8. 24 ~ 9. 30

※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 (2개) ※

자세히 보기

모델명	원가	할인 후 가격	할인 혜택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0	439,000원	389,000원	5만원 할인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304,000원	264,000원	4만원 할인
라인핏비데 BD-AFE50N	299,000원	229,000원	7만원 할인

구입문의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자세히 보기

기간 한정 이벤트

전국 대리점 단독 노비타 비데 보상 판매

2026. 8. 24 ~ 9. 30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

무료 수거, 무료 설치

비데 필터 증정 (2개)

모델명	원가	할인 후 가격	할인 혜택
스케일링™ 살균비데 자동 개폐+물내림형 BD-DPS13-010RB	759,000원	679,000원	8만원 할인
스케일링™ 살균비데 기본형 BD-DPS11-010RB	619,000원	569,000원	5만원 할인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0	350,000원	310,000원	4만원 할인

신광로터리

마리나사거리

마리나호텔